

민주주의가 대안이다

김종철

대담 및 정리 이송희일

광화문에 다녀왔다. 머릿수 하나라도 보태 주권자의 역능을 표현해야 그나마 실낱같은 숨이라도 토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죽히 이십만 명은 넘어 보이는 촛불 행렬이 서울 중심가를 붉은 용암처럼 휘돌았다. 구경하던 시민들은 박수를 쳤고, 자동차들은 경적을 울려댔다. 누군가는 혁명 같다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축제 같이라며 노래를 불렀다. 아마도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게다. 대통령을 퇴진시키느냐, 그러지 못하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순간. 그만치 백척간두의 아슬한 나날들이다.

김종철 선생님과 대담한 지 이틀 후부터 최순실 게이트가 견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마침내 대통령 지지율은 헌정 사상 최저치인 오 퍼센트로 추락했고, 일간지에서마저 '하야'를 요구하는 사설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 국가권력의 사유화로 굶아터진 부패의 진물이 흘러흘러 발목까지 차오를 지경이다. 국민들은 밤마다 분노의 응어리를 삼키 삼아 촛불을 댕기고 있다. 바보 대통령을 허수아비 삼아 비선출 세력이 복화술로 국가의 언어를 농단하고, 정치인과 재벌들은 이들에게 공물과 충성을 바쳐 이득을 꾀했다. 명백히 공범들이다. 국민이 잠든 사이, 그렇게 부당 거래의 굶판이 벌

어진 것이다. 필경 형식적 민주주의로 대중 윤곽을 지었던 1987년 체제의 종말이 다가온 것이리라. 1987년 체제를 넘어 실제의 민주주의로 도약할 지, 아니면 또다시 어설피 봉인될지 그 시대사적 운명의 초침이 똑딱거리고 있다.

이 거대한 절망과 분노는 단지 대통령의 퇴진이나 야당의 정권교체로 잠재울 수 없는 아우성일 터다. 체제의 임계점을 초월하는 갈망일 터다. 민주주의에 대한 요청, 지배계급에 대한 환멸, 그리고 공동체 운명에 대한 절망과 희망. 체제의 뿌리부터 다시 살피야 하는 급진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이 대답이 우리가 그려야 할 그림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지도 모르겠다. 이십오 년 동안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삶의 구체성으로부터 정치의 근원을 길어올렸던 김종철 선생의 그 ‘말’들은 결국 실제의 민주주의로 수렴되기 때문이다. 이 파국의 폐허 위에 다시 삶의 씨앗을 파종하는 농사꾼이 되기 위해 곱씹어야 할 비탄과 희망의 말들. 자명하게도, 우리는 지금의 분노 그 이후를 상상해야만 이 비참한 세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답이 가능한 한 다른 세계를 상상케 하는 언어들의 작은 낱알이 되기를 바란다.

『녹색평론』, 그 이십오 년의 시간

이승희 일 제가 진행을 해야 하는데, 사실 저는 문학에는 워낙 문외한입니다. 2008년도에 이문재 선생님과 말씀 나누신 걸 읽어봤는데, 그때는 주로 문학 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간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사회-정치적인 문제들을 요모조모 짚어보고, 선생님의 고견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난데없이 선생님과 영화감독인 저를 매치시켜놓은 편집위원들의 의도가 있을 텐데, 뭔가 엉뚱하면서도 신선한 조합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가급적 재미있게 질문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김종철 이문재씨야 나와 워낙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이니까. (웃음) 이

문제씨가 『녹색평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제대로 질문하는 사람이었죠. 질문이 잘되어야 대답도 잘할 수 있잖아요.

이승희일 저 괜히 했나봐요. 왜 한다고 했을까요.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단지 녹색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여기 끌려나온 것 같으니까…… (웃음) 2008년도에 『녹색평론』과 관련해서 이문재 선생님이 이모저모 질문하시긴 했지만, 『문학동네』 독자들이 지금의 『녹색평론』에 대해 다 알고 있던 않을 것 같습니다. 소개 차원에서 『녹색평론』에 선생님이 어떻게 관여하시고 어떤 작업들을 해오셨는지 기본적인 맥들을 짚어나가고, 그 다음에는 두루두루 한국의 정세와 세계 정치와 관련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향신문에 ‘김종철의 수하한화’라는 칼럼을 오 년째 쭉 기고하셨더라고요. 전체를 다 읽어보았는데, 이게 매달 쓰신 거잖아요. 읽는 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원래 선생님의 팬이어서 틈틈이 읽어보긴 했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을 해봤죠.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김종철 별로 말할 게 없어요. 칼럼 쓸 때만 쥐어짜내서 쓰는 거지.

이승희일 저도 가끔 『씨네21』이나 한겨레신문에 칼럼을 쓰는데, 두 군데를 돌아가며 쓰니까 사회정치,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 계속해서 쓸 ‘거리’들을 찾는 일이 꽤 고통스럽더라고요. 당장 쓰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내 칼럼의 차례가 아니고, 그 사건이 조금 지나서 열기가 식은 다음에는 ‘뭘 또 생각해야 하지?’ 하게 되고.

김종철 정말 말하기 싫은 사건 터졌을 때 내 순번이면 정말 곤란하죠. (웃음)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도 그랬고.

이승희일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가 『녹색평론』이 창간된 지 이십오 주년이죠.

김종철 네, 이십오 주년 기념호가 됩니다.

이승희일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김종철 아, 감회랄 게 있나요. 내가 맨날 하는 소리이지만 호랑이 등 타고 나니까 내려올 수가 없어서 하는 일이죠.

이승희일 제가 맨 처음 『녹색평론』을 접했을 때가 이십대 중반이었어요. 90학번인데, 운동권 시절의 끄트머리에서 학생운동을 하다가 세계관이 많이 바뀌었죠. 헨리 데이비드 소로 같은 철학자들을 접하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도 바뀌던 시점이었는데, 무엇보다 『녹색평론』의 영향이 컸죠. 굉장히 공교로웠던 게 그때 같이 운동했던 사람 중에 격렬하게 선두에 섰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녹색평론』을 추천했어요. 한마디로 책을 판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일 년 후에 갑자기 귀농을 했어요. (웃음) 새벽에 느닷없이 귀농했다는 전화를 받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책을 판 사람은 환락의 도시에서 열심히 영화 찍으며 살고 있는데, 정작 그 친구는 귀농을 한 거죠.

김종철 그 친구가 아주 잘했네.

이승희일 그런데 이후로 연락이 없더라고요. (웃음) 아무튼 이번에 대담을 준비하면서 선생님이 기존에 하셨던 인터뷰들을 다시 보았어요. 100호 기념 인터뷰가 특히 많더라고요. 어쨌든 올해로 이십오 주년이 되었는데, 사실 한 잡지가 오래 존속되기에는 한국 사회에서 부침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오래된 잡지가 있나요?

김종철 『창비』는 오십 년이죠.

이승희일 『창비』 빼고요. (웃음) 감회라든지, 짧게라도 독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호도 기념을 했고, 그때 전국 투어를 했죠. 일고여덟 개 도시를, 원주까지…… 100호 기념이라고 독자들이 대중강연회를 주선했는데, 광주 같은 데서는 시내에 플래카드도 크게 걸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십 주년 때는 이화여대 중강당에서 크게 했죠. 그런 식으로 몇 번 거창한 행사를 했는데 무슨 염치로 내가 이십오 주년이라고 또 잔치를 벌이겠습니까. (웃음) 지금 우리 상황이 내 잡지 이십오 주년이라고 축하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이래저래 힘들어요. 첫째는 나 자신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고, 둘째는 내가 젊은 세대들의 의식과 심리를 잘 모르겠어요. 요즘 나오는 잡지들의 목차만 훑어봐도 굉장히 생소한 느낌이에요. 세

대 간의 단절인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민음사에서 새로 나온 문학잡지 있잖아요. 그게 많이 팔린다는데, 내 감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표지나 본문 디자인도 이상하고, 잡지의 제목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한두 쪽지 읽어봤는데, 작가의 자전적인 요소가 강한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 문학적 감수성으로는 솔직히 감당이 안 돼요. 왜 이렇게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다들 나르시시즘에 빠져 사느냐,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우리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유교 문화의 잔재가 남아 있는 환경에서 성장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 얘기는 잘 안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연민에 빠진 이야기는 교양 없는 짓이라고 교육을 받은 탓인지 모르지만. 지금도 선후배들 만나 이야기를 해도 자신의 일신상 일이나 가정사 같은 것은 시시콜콜하게 얘기 안 합니다. 워선 떠는 게 아니라 몸에 밴 습관이죠. 물론 사적인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지식인이라면 사회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서 그럴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의 문학에 대해서는 내가 언급할 자격도 없지만, 모처럼 마음먹고 읽으려고 시도하다가도 번번이 썩개 쳐버려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 후배 세대이고,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지적인 전통을 이어갈 사람들인데, 대화와 교류가 이렇게 단절되어서 어떡하지? 이게 뭘 의미하느냐를 잘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승희일 평소에 따로 챙겨보시는 잡지가 있으신가요?

김종철 외국 잡지를 주로 읽죠. 이것들이 편해요. 나하고 기본적으로 생각이 같아요. 한국은 왜 이렇게 별난지 모르겠어요.

이승희일 영어를 잘하시는구나. (웃음)

김종철 일본도 그렇고. 문학잡지는 잘 안 봐요.

이승희일 외국에는 문학잡지 말고도 사회 비평지라든지 그런 잡지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죠.

김종철 사회정치 문제, 경제 문제 등을 다루는 종합적인 지면들이 많아요. 그 잡지들은 내게 굉장히 편하고 자연스러워요.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이죠. 근데 정작 우리나라는 그런 잡지가 드물어요. 내가 소외감을 많이 느

깁니다. 이게 무슨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연구해봐야겠죠. 왜 내가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네. (웃음) 왜 우리는 별나게 초현대적으로 나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정한 잡지를 거론할 건 없고,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우리는 구세대 작가들과 신세대 작가들이 연결이 안 되는가. 내가 꾸준하게 문학 판에서 활동을 했더라면 이걸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문학잡지라곤 거의 안 봤어요. 표지만 훑는 정도였죠. 『녹색평론』 만든다고 바쁘기도 했고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문학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전에 이런 얘길 이문재씨와 나는 적이 있어요. 이문재씨가 그러더라고. 예전에는 우리 문학 판에 비평가나 창작자를 막론하고 외국문학 전공자들이 많았는데, 어느 틈엔가 문창과 출신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사회사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요. 난 문창과가 언제부터 그렇게 득세를 했는지 잘 몰랐어요.

이송희일 다른 지면에서도 요즘 한국문학이 문창과 위주로 구성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문창과라는 표현이 등단과 관련된 거잖아요. 문학 판에 등장하려면 규격화되어 있는 어떤 방식에 맞춰야 되는 필요성 같은 거요. 영화 판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영화제 본선에 선정되거나 영화 관련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영화들의 주제와 형식이 거의 규격화되다시피 했거든요.

김종철 이송희일씨는 무슨 과 나오셨어요?

이송희일 사회학과 나왔습니다.

김종철 아, 좋은 공부 하셨네. (웃음) 지금 『녹색평론』 정기구독자 가운데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특별한 소수를 빼놓고는. 그러니까 이 잡지도 세월이 가면 자연스럽게 소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타협하고 싶지는 않고, 우리 잡지의 표지는 젊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디자인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누가 주장하던데. (웃음) 그러니까 오히려 책방에서 제일 눈에 잘 띄잖아요. 천연색 표지들 사이에 홀로 흑백이니까.

이송희일 이십오 년 동안 디자인이 바뀐 적이 없나요?

김종철 세 번쯤 바뀌었죠. 창간호는 정병규씨가 디자인했어요. 나는 내

가 디자인해도 되는 걸 왜 꼭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느냐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편집장이 정병규씨에게 부탁을 했던 모양인지, 정병규씨가 무료로 해줬어요. 그런데 독자들이 꼭 학술지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해서 그뒤에 내 손으로 바꿨어요. 지금 『녹색평론』 표지 좋잖아요, 선명하고. 독자들도 좋아해요.

이승희일 이십오 년 동안 잡지가 나이들면서 독자도 함께 나이가 드는 현상이네요.

김종철 독자하고 나하고 같이 늙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들이 내가 늙은 걸 거의 의식을 못해요. (웃음)

이승희일 외국의 작고 오래된 영화제에 가면, 영화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을 법한 할아버지 할머니들로 관객들이 이루어져 있는 걸 흔히 볼 수 있어요. 극장에 가보면 관객들의 머리가 희끗희끗해요. 젊은 친구들은 그런 영화제에 잘 안 가거든요. 멀티플렉스에서 개봉 영화를 보거나 다운로드를 통해 보니까. 그런 풍경이랑도 또 엇비슷하네요.

김종철 학생운동 세대들이 지금도 활동을 하잖아요. 팔십대까지. 밥 딜런도 그렇고, 켄 로치도 그렇고. 그게 아마 학생운동 세대의 힘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뭐 나이 육십 칠십 넘으면 손자나 보고 원로 행세나 하려 하죠. (웃음)

이승희일 재미있는 것은 최근 녹색당도 나오고 『녹색평론』도 이십오 주년이 되었는데, 선생님을 비롯해서 『녹색평론』이 이십오 년 동안 일관되게 지금의 자본주의를 지렛대질하는 두 가지가 금융, 그리고 석유 문명이라고 지적해왔다는 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녹색당의 공약들을 이상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많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다 뜯구름 같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의 경향신문 칼럼의 댓글란까지 꼼꼼히 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비판이 ‘이상적이다’ ‘근본주의적이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십오 년이 지난 지금 너무나 적나라하게 금융자본주의의 폐해가 드러났잖아요. 2008년 전 세계 금융 위기로 다 폭로가 됐죠. 마찬가지로 이라크 전쟁, 그리고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

고가 터지고 나서는 에너지 문제에 대해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반전이기도 하고, 반어적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느끼시는 게 많을 것 같아요. 1990년대 초반부터 홀로 즐기치게 말씀하셨는데.

김종철 내 실수가 뭐냐면, 늘 너무 일찍 이야기해요. (웃음) 다들 그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가 나중에야 ‘아, 그랬지’ 희미하게 기억해요. 그 문제는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석유에 대해선 말해봤자 사람들이 시큰둥한데, 곧 결정적인 위기가 닥치겠죠. 금융 문제는 부채 문제하고 직결돼요. 기본적으로 은행 제도 자체 때문에 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거기에 착안하는 경제학자들이 잘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아무리 사회생태적인 얘기를 떠들어봐야 관념적이 돼요. 사람들은 우선 먹고살아야 하죠. 그러니 먹고사는 방법을 합리적으로 가져가야 이것도 해결이 되는 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 내가 외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제기해봤는데 아직 별로 호응이 없는 것 같아요.

이승희일 그래도 지난 십 년과 비교해보면 금융 문제, 특히 카지노 자본주의를 이대로 놔둬선 안 된다는 인식이 많아진 것 같아요.

김종철 카지노 자본주의가 문제라는 건 대개 인식하고 있죠. 그런데 근대적 은행 제도 자체가 만약의 근원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는 한국의 지식인들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외국엔 꽤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는 잡지의 필자들도 거기에서는 소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영미식 주류 경제학을 공부하는 한국 학자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녹색평론』이나 어떤 잡지가 성공하려면 옆에서 호응해주는 매스컴이 있어야 해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기본적으로 나하고 정치적 지향이 같긴 하지만, 구좌파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아직도 ‘성장’ 논리를 흔쾌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녹색평론』의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의미를 잘 모르고,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깨달음이 안 오니까. 잡지가 이런 문제를 다루면 신문에서 기사로 소개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거의 안 해줘요.

이승희일 그래도 프레시안하고는 에너지 문제나 기후 문제를 쪽 같이 얘

기하고 제시죠?

김종철 프레시안은 이것저것 다 실어줘요. 나한테만 그러는 건 아니고. (웃음) 기본적인 합리성이 있다 싶으면 게재해줘요. 작년엔가 프레시안이 주선해서 기본소득에 관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은행 제도에 관해 이야기한 대목이 기자가 잘 이해가 안 되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강연 내용을 정리하여 기사로 냈는데 기자가 그 부분을 빼버렸더군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가 별 차이가 없게 됐죠. 그때 느낀 게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내 이야기가 별로 먹혀들지 않는구나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빌 토튼이라는 일본으로 귀화해서 사는 미국 사람이 쓴 『100% 돈이 세상을 살린다』라는 책을 직접 번역해서 출판했어요. 경제학이나 금융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내가 말해봤자 믿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쪽 전문가들이 쓴 글이나 책을 먼저 번역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근데 번역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경제금융 관계 사전들을 구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첫째 전문용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모르겠고, 내가 평생 주식을 사본 경험도 없고 부동산 투기 같은 것을 해본 적도 없으니까 그림이 잘 잡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공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번역해서 잡지에 실곤 했지만, 『녹색평론』의 고정 독자들은 그게 중요한 글이라는 건 알아도 글 자체에는 재미를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스토리가 있는 글도 아니니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전문가가 나서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몇 년이나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문가가 나타나서 열심히 발언하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승희일 선생님이 그동안 써왔던 글들도 그렇고, 지금 가장 강조하고 있는 문제는 은행, 부채 문제인 거죠?

김종철 지금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가 백만 명이에요. 지난번에 어느 방송에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사채 문제를 다뤄서 봤어요. 법률적으로는 사채 이자가 육십 퍼센트까지 허용돼 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사채놀이 하는 사람들 중에는 육백 퍼센트, 심지어 육천 퍼센트까지 받는 경우도 있는 모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신용불량자는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보통 정규직 직장을 가진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되지는 않잖아요. 살기가 심히 고달픈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사채업자한테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사회의 금융 구조란 말이에요. 백만원 빌린 게 몇 달 만에 몇천만원이 되고 일 년이면 억 단위로 불어나요. 그러다보면 결국 사채 이자를 갚기 위해 돌려막기를 해야 해요. 또다른 사채업자들한테 찾아가 돈을 빌리는 거죠. 결국은 일고여덟 명의 사채업자하고 상대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아무 벌이도 없는 사람이 하루에 백만원, 이백만원을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승희일 저도 신용불량자를 두 번 겪어봐서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웃음)

김종철 친구들이 없어요?

이승희일 안 도와주더라고요. 나중에는 시골 땅 담보까지 들어가고. (웃음)

김종철 그래서 최후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한강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부채 문제 해결을 안 하면 이 사회가 조만간 붕괴될 거예요. 내가 원래 『녹색평론』을 시작한 것은 하늘이고 땅이고 바다고 온 천지가 오염되고 파괴되는 것을 보다못해서였습니다. 자동차 백날 만들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다는 걸 체계적으로 말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작했죠. 그런데 그냥 환경 위기가 어떻다, 생태적 위기가 심각하다고 소리질러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결국은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냥 자본주의 나쁘다고 비판해봤자 소용없어요.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뭔지 살펴봐야 돼요. 그게 바로 부채예요. 기본적으로 『녹색평론』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이게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도 살기가 고달프면 우리한테 “느그 아버지 월급 말고 누가 조금만 보태주면 좋겠다”는 말씀 잘 하셨거든요. 그 기억 때문에 내가 기본소득에 열심인지도 모르죠. 요새 『녹색평론』이 사회적 현안들에 대해 지나치게 열중한다고 불만을 가

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왜 다른 잡지들은 안 하지? 문학 전문 잡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종합잡지도 구체적인 현실 문제를 다루거나 대안을 내놓는 글은 별로 없어요. 한심한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제작년 2014년이 동학농민혁명 백이십 주년 되는 해였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해예요. 동학 육십 주년 때는 나라 형편이 그런 걸 기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육이오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그런데 백이십 주년이면 웬만큼 경제적으로 발전도 했다, 영터리이지만 민주화도 어느 정도 이뤘다고 하는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우리 근대사의 출발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을 되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2013년 하반기부터 나름대로 역사책을 보면서 2014년에는 일 년 내내 동학 관계 특집을 꾸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잡지들은 전혀 동학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해 4월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면서 『녹색평론』도 결국 연속적 특집은 포기했지만, 그래도 연초에는 어쨌든 동학 관계 글을 몇 편 실었어요. 그런데 그해에 『역사비평』에도 동학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지금도 궁금해요. 이 나라의 공적인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정신 줄을 놓고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녹색평론』은 타이틀 때문에 환경 잡지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이 ‘녹색’이라는 낱말에 구속 안 받기로 작정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환경운동가인 줄 알아요. 환경 문제에 관해 물어보면 딱 데 가서 물어봐라, 그러죠. 근데 또 염치없이 뭐 탈핵 강의 같은 거 해달라 하면 하긴 해요. (웃음) 탈핵 강의를 할 때도 내가 잘 모르는 기술적인 이야기는 피하고, 대개는 정치 이야기를 하죠.

이승희일 그럼 이십오 년 사이에 처음이랑 많이 변하신 거예요?

김종철 별로 변한 건 없습니다. 내가 처음에 『녹색평론』을 만든 계기가 있어요. 1980년 광주에서 그 만행이 있고 난 후에 한국 땅에서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재직하고 있던 학교에 장기 출장을 허가받아서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어요. 처음에는 나도 당시의 유행 따라 마르크스주의 문학 이론을 공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루돌프 바로라는 사람을 발견했죠. 독

일에서 페트라 켈리하고 같이 녹색당을 창당한 사람이에요. 동독에서 마르크스주의 철학자로 활동하다가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책을 썼어요. 『대안』이란 책이죠. 영어 제목은 '동유럽에서의 대안'으로 돼 있어요. 실제로는 서구식 자본주의 문명까지 포함한 산업 문명 전체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책입니다. 원래 독일어 제목도 그냥 '대안'으로 돼 있었죠. 그런데 미국인들이 번역본의 제목을 '동유럽에서의 대안'으로 고쳐 달면서 마치 그 비판이 동구권 사회주의에 국한된 것처럼 책의 의미를 축소시켜버린 거죠. 어쨌든 동독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루돌프 바로의 이 책은 서독에서 먼저 출판됐어요. 책이 출판되자 이 사람은 동독에서 체포돼서 감옥살이를 했죠. 하지만 서독을 중심으로 서구 여러 나라의 지식인들이 이 중요한 마르크스주의 철학자를 석방하라고 꽤 치열한 구명운동을 벌였고, 그 덕분에 결국 풀려났어요. 풀려나면서 바로 서독으로 추방을 당했죠. 그리고 서독으로 넘어오자 곧 페트라 켈리를 만나 녹색당 창당의 주역으로 활동합니다. 내가 미국에 막 갔을 때 마침 미국의 신형 핵무기를 유럽에 배치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반핵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루돌프 바로가 뉴욕의 반핵 집회에 와서 연설을 했어요. 내가 직접 그 집회에 가보지는 못하고 신문을 봤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인상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발언 때문에 미국의 좌파 운동가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었어요. "핵무기를 없애려면 먼저 뉴욕 시내를 질주하는 저 자동차들을 없앨 생각을 해야 한다"는 발언이었죠. 언젠가부터 나 자신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발언을 보니 눈이 번쩍 뜨입니다. 순식간에 그 사람에게 반해버렸죠. 아무튼 그 이후 바로의 책을 구할 수 있는 대로 구해서 열심히 읽었어요. 루돌프 바로는 『대안』이라는 책을 쓸 때만 해도 마르크스주의자였지만, 이미 그때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생태주의자임을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죠. 나는 그가 마르크스주의자에서 생태주의자로 전신한 과정도 무척 흥미롭게 보았지만, 생태주의라는 게 근본적으로 보다 철저한 사회주의 혹은 래디컬한 민주주의를 뜻한다는 것을 그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루돌프 바로의 책을 보다가 원래 계획했던 공부를 그만두고, 한 일

년 꼬박 도서관에 처박혀 있다가 돌아왔어요. 애초에 계획했던 박사 공부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승희일 그게 몇 년도쯤인가요?

김종철 1983년에 갔다가 1984년에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병이 났어요. 그래서 번두리 아파트에 살면서 학교는 강의가 있을 때만 나가고 근처 약수터를 왔다갔다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요양하면서 보냈어요. 내 몸이 안 좋으니까 공업 문명, 자본주의 문명에 대한 반감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늘 고민이었죠. 이런 식의 경제발전, 산업사회를 지향해간다면 결국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파멸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하지만 당시는 반독재·민주화 투쟁이 절박했고, 또 학생들이 끊임없이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 자신도 학교에서 어쨌든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같은 데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내 맘 속의 이야기를 꺼낼 형편이 안 되었죠. 그러나 나는 속으로 민주화는 조만간 될 거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국에서 가지고 온 자료들과 또 해외에 주문해서 받은 책들을 가지고 혼자서 공부했죠. 그러다가 결국 노태우 정부 때 이제는 때가 됐다 싶어 잡지 발간을 구체적으로 구상했죠. 처음에는 혼자 할 엄두가 안 나서 총장을 찾아갔어요. 학교 출판부를 좋은 출판부로 만들어볼 생각 없느냐면서 내 구상을 얘기하니 총장이 흔쾌히 지원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총장을 발행인으로 하고 내가 편집자가 돼서 좋은 잡지를 하나 내기로 했죠. 그런데 대한민국 교수 사회란 게 양아치들 사회예요. 총장이 누구에게 특혜를 준다고 불평하는 소리들이 내 귀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출판부를 통해서 잡지를 낸다는 계획을 짰어치우고 여기저기 알아보니 내 월급을 투입하면 되겠다 싶더라고. 우리 집사람도 직장생활을 하니 먹고사는 거야 문제없으니까. 그렇게 시작했죠.

이승희일 처음에 몇 부나 출판하셨죠?

김종철 그때는 거의 모든 출판사의 단행본이 기본적으로 삼천 부였죠. 요

즘은 몇 부입니까?

이승희일 천 부, 이천 부 아닐까요?

김종철 우리는 삼천 부 찍었어요. 그땐 기본이 삼천 부였으니까. 얼마나 내가 멍청한 인간이었나 하면, 그전에 잡지사나 출판사에 더러 출입했지만 영업부 직원하고는 이야기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삼천 부 찍어놓으면 저절로 나갈 줄 알았지. (웃음) 서울에서 인쇄하고 대구로 삼천 부가 실려 왔는데, 막상 책이 도착하니 ‘이걸 어떡하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판로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을 안 한 거죠.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히네. 그런데 그때 ‘한살림’이 막 출발했을 때예요. 『녹색평론』보다 조금 먼저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살림에 연락해서 공짜로 책을 보내드릴 테니까 공급 물품 중에 한 부씩 넣어 배달해주기를 부탁했죠.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나하고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동지들인데…… 그리고 지금 ‘녹색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장원이라는 사람이 대전에서 시작한 시민단체가 발전한 겁니다. 배달환경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죠. 장원씨가 그때 대전대학 교수였거든요. 그 이후 불미스러운 스캔들 때문에 종적을 감춘 것 같은데…… 그때 그 단체에 회원이 꽤 많았어요. 한 이천 명 정도 되었죠. 그래서 실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도 전화를 해서 내가 『녹색평론』이라는 잡지를 창간했는데 이 잡지를 당신네 회원들에게도 좀 보내고 싶다, 독자 명단과 주소를 보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죠. 나는 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 단체 회원 정보를 쉽게 내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장원씨가 참 혈령한 사람이더라고. “네, 그러죠” 하면서 보내준 거야. (웃음) 아, 이 사람 좋은 사람이네, 야무지지는 못해도.

이승희일 지금 같으면 구속됐을 텐데요. (웃음)

김종철 그래서 한 오백 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보내줬어요. 배송비고 뭐고 내 돈이었지. 원치도 않은데 그냥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전국의 도서관, 국회의원들, 청와대 등에 다 보냈어요. 국립 도서관들에는 지금까지도 무료로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유료로 전환해달라고 몇 번이나 편지를 보냈지만 말

안 들어요. (웃음) 그래도 책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문인들한테 보냈죠. 그때는 작가회의 주소록 같은 것도 없었어요. 알음알음 보냈는데, 그런데도 또 남아요. 그래서 내가 보는 신문들의 독자 투고란에 쓸 만한 발언을 한 사람들의 주소를 신문에 물어 물어 알아냈어요. 내가 참 정성이 대단했지 그때. 그 사람들까지도 책을 보내주었어요. 그렇게 삼천 부를 다 소화시켜놓고 나니까 지금 나한테도 창간호는 한 부밖에 없어요. 잡지 초창기에는 내가 완전히 미쳐 있었죠. 그러자 한 일 년 만에 독자가 이전 명 정도가 됐어요. 정기구독자가.

이승희일 빠르네요.

김종철 굉장히 빨랐죠. 지금 생각해 보니 IMF 외환 위기 이전이었잖아요. 1991년이니깐. IMF 이전에는 웬만한 기업체에는 잡지 형태의 홍보지가 있었고, 인문계 출신들이 그걸 만들었어요. 그게 자기 회사 홍보만 하는 게 아니고, 읽을 만한 글들이 꽤 있었어요. 문인들한테 부탁해서 글을 받았죠. 그리고 편집자의 말도 있고, 편집자가 좋아하는 책 소개 코너도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거기에서 『녹색평론』을 많이 소개해줬어요.

이승희일 어찌 보면 학생운동의 영향이 계속 있었던 거네요.

김종철 그렇죠. 인문계 출신들이 일할 직장이라는 게 출판사 외에 몇 군데 안 되죠. 그런데 그때는 기업체 홍보실도 좋은 직장이었죠. 그런데 IMF 이후에 그런 홍보실이 거의 다 없어지고, 인문계 출신들이 갈 데가 없어졌어요. 이것도 우리 사회가 정신적으로 황폐해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승희일 지금은 사보 같은 걸 봐도 예전 느낌이 전혀 없더라고요.

김종철 이제 좀 있으면 우리나라 군소 출판사들은 거의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책을 보는 사람이 급속히 사라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되겠어요. 계속 적자 내면서 버틸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출판업이 활기를 띠어야 인문학도, 인문 정신도 살 수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우선 지금 문과계 출신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진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대학은 계속 줄어들 거니까 대학에서 일자리를 잡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거예요. 이제는 전부 다 상경계나 이공계 출신들에게만 밥벌이가 가능한 직장이 주어지는 거죠. 이러다가 한국의 정신문화는 곧 소멸될 거예요. 큰 걱정입니다. 국가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해요. 생각이 있는 정부라면 정책적인 구상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정부에 이런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지식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물론 독서 인구가 줄어드는 건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심해요. 독서 인구가 이렇게 급감하는 나라는 한국 말고는 없어요. 일본도 독서 인구가 준다고 걱정하지만, 아직은 동네마다 고르게 책을 갖춘 서점들이 건재하고 있어요.

이승희일 그래도 『녹색평론』은 지금까지 독자들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김종철 『녹색평론』도 지금 많이 줄고 있어요. 젊은 독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신세대가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오지 않아요……그래서 요새는 사람들이 몇 부 찢느냐고 물어도 대답 안 해요. (웃음)

이승희일 그렇게 독자층이 사라지는 게 예전에는 『녹색평론』이 소농 공동체 중심의 향수라든지 사적인 에세이들을 많이 싣고 했던 것에서 시사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영향도 있을까요?

김종철 그런 글을 지금 별로 신지 않는 것은 이미 많은 단체들이 내는 소규모 잡지나 팸플릿에서 그런 글을 다루고 있거든요. 내가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이승희일 자체 소식지라든지 그런 게 많나요?

김종철 네, 많아요. 한살림도 전국 조합원이 몇 십만 명 되고, 자기 잡지가 있어요. 『녹색평론』이라는 좋은 잡지가 있는데 왜 또 거기서 그런 잡지를 만드느냐고 농담 삼아 내가 말하는데, 기구가 커지니까 그런 간행물이 필요해지는 모양이에요. 인문계 졸업생들이 그런 데서 일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하여튼 그런 잡지들이 산재해 있으니까 내가 굳이 되풀이할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녹색평론』이 아니면 못하는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주로 다루고 있는 아이템들이 사실 그렇게 대중성이 있는 건 아니예요. 생각을 요하는 글들이 많죠. 그래도 『문학동네』보단 많이 찍는 게

아닌가 싶은데. (웃음) 『녹색평론』은 얇고 싸고 무게가 가볍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새 다른 책들은 어찌나 두껍고 무거운지.

이승희 일 저도 시골집에 안 사니까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책들을 광에다가 처박아놓아요. 얼마 전에 열어보니까 굴러다니는 책들 중에 『문학동네』가 많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저도 계간지를 안 읽게 되었죠. 왜 이렇까, 왜 이렇게 독서를 게을리할까 생각해봤어요.

김종철 내가 『문학동네』 편집자라면 면수를 많이 줄이겠어요. 너무 두꺼우면 부담스럽고 읽고 싶지가 않아요. 『월간조선』이나 『신동아』 같은 걸 왜 답으려고 해요? (웃음)

지식인이 실종된 시대

이승희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저는 약간 고소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약간 속으로 ‘꼴좋다’라는 생각도 문득 들어요. 『녹색평론』에 글을 쓰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1990년대부터 저 역시 ‘원전도 문제고 기후도 문제고 생태도 문제야’ 이렇게 말해왔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커밍아웃한 게이이기도 해요. 자식도 없는 제가 오히려 ‘내 조카들을 비롯해 후손들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고민도 안 하고 있니?’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올여름 폭염에, 드디어 올게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진작 귀담아 좀 듣지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그게 『녹색평론』이 꾸준히 제기해왔던 문제들이었는데, 선생님이 너무나 담담하게 말씀하시니까…… (웃음)

김종철 세상에든 언젠가 종말이 오겠죠. 그런데 종말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종말이 오면 오는 거고,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 할 일 다 하고 살자고 생각하면 오히려 맘 편해요. 그러면서 내 일에 열중하는 거죠.

이승희 종말을 지연시키느라…… (웃음)

김종철 내가 무슨 지구 대표자도 아니고 하느님도 아니고. (웃음) 그냥 오늘 내가 할 일 다 하고 산다면서 살아요. 지금 나는 손자가 없어요. 내 나

이에 손자 없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그런 것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아들은 결혼을 했고, 딸은 미혼인데, 개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신경 안 쓰려고 해요. 어떤 때 내게 손자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하면, 매우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이승희일 어떤 의미에서요?

김종철 지금과 같은 사회적, 환경적 조건 속에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겠어요? 골치 아파요. 그리고 이대로 간다면 우리 손자 세대가 성인이 될 무렵에는 아마 지구환경이 훨씬 더 끔찍해져 있을 건데. 그럴 가능성이 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승희일 『녹색평론』을 읽고 느낀 대로 그림을 그리면…… 어제도 어린 조카의 손을 잡고 불꽃놀이를 하는데, 애가 나중에 삼십대 사십대가 되어 왕성히 살 때쯤이면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김종철 우리 전 세대까지는 아예 존재하지 않던 고민거리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아주 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마음이 착잡해져요. 최근에 한겨레신문에 칼럼을 쓰면서 원자력발전소 문제를 언급했어요. 지난번에 일본의 지진 전문가가 와서 그랬던데요? 9월에 있었던 경주 지진, 그건 앞으로 삼사 개월 후에 들이닥칠 본진의 예고편인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연말쯤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한전이나 정부에서는 진도 6.5까지는 안전하도록 설계돼 있으니 염려마라 하지만 공사를 제대로 했을 리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6.5 이상의 지진이 터지면 어떡할 거냐. 한국은 일본에 비해 땅도 좁아요. 한번 터지면 도망갈 데도 없어요. 방사능에 계속 피폭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뭐요 도대체? 그런 걸 생각하니 기가 짝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상황을 상상도 하기 싫다고 썼어요. 우리나라에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 아예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때는 세상은 죽었다, 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썼더니 그날 내 칼럼을 읽은 몇몇 독자들이 우리 사무실에 항의성 전화를 했다고 해요. 대체 그런 정보의 출처가 어디냐고 따지는 전화였죠. 그런데 웃긴 건 그게 원래 조선일보에 난 기



『녹색평론』에 글을 쓰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1990년대부터 저 역시 '원전도 문제고 기후도 문제고 생태도 문제야' 이렇게 말해왔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커밍아웃한 게이이기도 해요. 자식도 없는 제가 오히려 '내 조카들을 비롯해 후손들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고민도 안 하고 있니?'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승희일

사였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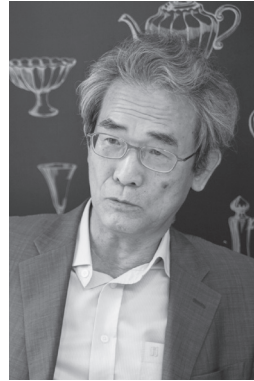
이승희일 많이들 그 기사를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김종철 기사에서 삼사 개월이라고 예언을 했으니 조만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지금 생각해봐야 골치만 아프지 지금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 정치 시스템으로는 마땅한 해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기는 어차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이죠. 지구 나이가 사십육억 년이라는데, 지금 그 사십육억 년의 마지막날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승희일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웃음) 지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봤어요. 지진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원전 걱정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지진 전에는 원전 완전 중지, 백지화를 찬성하는 사람이 십육 퍼센트 정도였는데, 지진 후에는 오십 퍼센트가 훌쩍 넘는 거예요. 일단 멈추자고. 그래서 이 결과를 환경운동연합에서 보도 자료를 만들어 뿌렸는데 경주, 울산, 부산 세 군데 지역신문만 보도를 하고 종합 일간지에서는 한 군데도 보도를 안 했대요.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도 일간지나 이런 데서는 지퍼 단트 입을 싹 닫고 있는 걸 보면 정말 한국은 선생님 말씀처럼 아무 생각 안 하고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웃음)

예전에 우리 어머니도 살기가 고달프면 우리에게
“누그 아버지 월급 말고 누가 조금만 보태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잘 하셨거든요. 그 기억 때문에 내가 기본소득에 열심인지도
모르죠. 요새 『녹색평론』이 사회적 현안들에 대해
지나치게 열중한다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왜 다른 잡지들은 안 하지?

김종철



김종철 지금 당장 원전 가동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그걸 요구하는 운동을 계속해야 돼요. 그런데 가동을 중지시킨다고 지진 났을 때 괜찮은 것도 아니에요. 원전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승희일 바로 제거를 할 수가 없다고 들었어요.

김종철 바로 제거할 수가 없죠. 원자로를 식히는 데도 수십 년이 걸리죠. 아이고, 이런 얘기 하면 골치만 아프다니까. (웃음) 인간이라는 게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모르지만, 꼭 경주 같은 데서 지진이 난 뒤에야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다는 게 웃기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뻔한 건데 그 생각을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원전을 지으면 설사 지진이 안 일어나더라도 수명이 다하면 어떻게 처리하지? 핵폐기물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반세기 전에 원전을 처음 시작할 때는 과학이 발전할 테니까 대책이 곧 나오겠지 하고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짓이냐는 거죠. 그리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라도 알았으면 이제 멈춰야 되는데 멈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멈출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자본주의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근본적인 결함이 인간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단 자살 충동 같은 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승희 일 제가 어렸을 때 작은아버지가 돼지를 키웠는데,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 어느 날 이쪽 우리에서 저쪽 우리로 돼지를 옮기는데, 작은아버지가 이걸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몽둥이로 서열이 가장 높은 우두머리 돼지를 막 때려요. 그런데 그 우두머리 돼지는 피가 철철 나는데도 저쪽 우리로 죽어라 안 가요. 그러니까 무리의 다른 돼지들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어떤 선배가 검은 천을 우두머리한테 씌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천을 씌워서 엉덩이를 툭툭 치니까 저쪽 우리로 쓰윽 가더라고요. 그러자 무리의 다른 돼지들도 우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커가면서 잘못된 시스템에도 쉽게 순응하는 인간을 볼 때마다 검은 천을 뒤집어쓴 돼지가 자주 생각나더라고요. 선생님이 원전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갑갑하게 느꼈던 일이 있어요. 지질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 경주 지층을 조사하려면 동부 벨트를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서부만 연구했고, 그래놓고 ‘동부는 안전합니다’ 하는 결론을 내놓았던 거예요. (웃음) 정말 이걸 답도 없구나 싶어요.

김종철 경주의 핵폐기물 처리장, 소위 방폐장이 지금 완성됐죠. 하필 문무왕릉이 바라보이는 바닷가에 만들어졌어요. 공사를 위해서 지하로 파 들어가보니까 거대한 수맥이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칠수해야 되는데, 계속 공사를 했어요. 매일 쏟아지는 지하수 수천 톤씩을 양수기로 퍼내면서요. 경주 동국대학교 의대에 김익중 교수라는 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탈핵운동가 중 한 사람입니다. 그 김익중 교수가 방폐장 공사 현장이 그 지경인 것을 알고 깜짝 놀라서 대전에 있는 원자력기술연구원에 질의서를 보냈어요. 지금 수맥이 지나가는 자리에 방폐장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요. 이미 알고 있다는 회신이 왔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책임을 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퍼내면서 공사가 일단 완료되면 그때부터는 방폐장 관리를 담당하는 다른 기관의 소관이 되니까 자기들은 수맥 때문에 방폐장이 붕괴되든 말든 책임을 질 게 없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볼 때, 수맥을 이길 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원자력 관계 전문가들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죠. 그런데도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뻔히 보면서 엉터리 공사를 강행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왜 그럴까요? 일본에 다카기 진자부로라고 유명한 반핵운동가이자 시민 과학자가 있었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기 훨씬 전에 고인이 되었지만, 이미 이런 사고를 예견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탈핵운동가가 아니라 원자력 전공 학자인데다가 대단한 철학자였죠. 그런데 그분의 어느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원자력 시스템을 확대한다는 게 미친 짓이라는 것은 실제로 거의 모든 원자력 전문가들도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반대를 하지 않는 것은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이대로 가면 파국이 닥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런 체념에 빠져 있다,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과학자나 전문가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니힐리즘이라는 거죠. 정말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이승희일 제가 얼마 전에 올해 처음 열리는 ‘울주 세계산악영화제’에 다녀왔어요. 경주에 지진이 난 직후인데, 같이 출연했던 배우랑 식당에 들어갔을 때 주민들에게 무섭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울주가 전국에서 군 단위로 놓고 보면 돈이 제일 많다고 해요. 원전도 있고, 핵폐기장도 있고. 지원금은 받았을 테고, 자신들도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의 표정이랄까. 이런 식의 답합된 침묵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김종철 농촌 경제가 워낙 피폐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승희일 선생님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되는 게, 거기가 워낙 외떨어진 산 밑의 지역이다보니 러브모텔을 막 지은 거예요. 장사가 될 줄 알고 지었는데, 결국 유명도시가 돼버렸어요. 마치 서부영화에서 황폐해진 도시에 앉아 있는 사람들처럼 손님도 없는데 다들 그냥 무기력하게 장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돈은 받았고, 그래서 말은 못하겠고, 그냥 황폐하게……

김종철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뭐냐면 장기적인 비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루살이들이예요. 정치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식인들도 그래요. 거의 모두가 아직도 경제성장에 대한 맹목적

인 믿음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에요. “분배를 고르게 해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정도가 진보적인 이야기로 인정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먹고살기 바쁜 일반 생활인, 기층 민중이 무엇을 알겠어요?

이승희 경제성장 이야기는 워낙 선생님이 오랫동안 하셨고, 저도 백 프로가 아니라 천 프로 만 프로 동의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2008년 인터뷰에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정치적 독재는 오히려 사람들을 긴장시키면서 살아 있게 만드는데, 경제성장이라는 신화는 사람들을 마취시킨다고 하셨어요.

김종철 1970년대 1980년대의 학생들은 의식이 살아 있었어요. 거기 비하면 지금 학생들은 다 죽어 있죠.

이승희 그 말씀이 굉장히 와 닿더라고요. 오히려 경제성장이란 신화의 독재가 사람들을 훨씬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말씀.

김종철 지금 티베트도 그렇다고 합니다. 중국의 점령 통치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체포돼서 고문당하고 했을 때가 오히려 생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소비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철도도 연결되고, 코카콜라, 세븐일레븐, 맥도날드 따위 온갖 소비주의 문화가 들어와 있는 지금은 승려도 청년들이고 모두 호물호물해져서 저항할 의지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승희 IMF 사태가 터지고 나서 ‘부자 되세요’라는 CF 유행어가 우리 삶에 일상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당시 거의 유일하게 『녹색평론』만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경제성장을 갈망하는 마법의 주문 같다고 계속 비판하셨죠. 그때 이후로 한국 사회가 영망진창으로 무너지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절망에 빠진 게 한국 사회가 경제성장이라는 허상 때문에 ‘박근혜’에 열광했고, 그 때문에 현재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났음에도 여전히 또다른 성과주의의 상징인 반기문이 차기 대권주자로 앞서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 년을 건디면 조금 나아지려나 했는데,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김종철 지식인층이 문제예요. 지식인들이 꾸준히 발언을 하면 정치가들

도 정신을 차릴 거 아니에요. 정치가들은 책 읽을 시간도 없고 거의 바보 수준이라 그 뒤에서 조언하고 충고하고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깨우쳐주는 여론의 풍토가 중요해요. 여론을 좌우하는 게 결국 지식인의 일이잖아요. 방송이든 신문이든 잡지든 필자들은 모두 지식인이예요. 결국은 지식인의 생각과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최근 들어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지식인의 성격과 학문의 깊이, 교양이라는 게 형편없는 수준이 아닌가요. 노벨상이 절대적인 척도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내가 절대로 찬성 못하지만, 어쨌든 그게 하나의 시시한 척도는 될 수 있어요. 노벨평화상은 완전히 정치적인 것이니 말할 게 없지만, 노벨문학상도 결국은 정치적인 상이예요.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벨문학상에 신경을 쓰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문제는 과학상입니다. 물리, 화학, 의학, 생물학 등등 현대과학의 언어는 세계 공용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실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거죠. 가령 일본은 노벨과학상 수상자만 스무 명이 넘거든요. 한국인은 전혀 없어요. 나는 앞으로도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한국에는 정말로 과학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어렸을 적에 시험공부에 시달리고, 어쩌다 이공계에서 좋은 성적을 내다가 과학자가 된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아마 앞으로 누군가 받게 된다면 미국에서 연구하는 한국 혈통의 과학자일 가능성이 큼니다. 그리고 한국의 과학 공부는 한국어로 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대부분 일본어로 과학을 공부합니다. 일본인으로 노벨과학상을 받은 사람 중에는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지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일본말로 된 책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과학이 좋아서 공부한 사람들이예요. 일본은 과학에 관한 첨단 자료들이 다 일본말로 되어 있어요. 세계에서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말로 과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국인이나 한국인은 영어나 구라과 말로 된 책을 가지고 공부한단 말이에요. 외국어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력이 제한되게 마련이예요. 물론 일상적인 논문을 발표하고 학회활동을 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지 모

르죠. 그러나 응용과학 말고 순수한 과학적인 발상이라는 게 결국 상상력이
 잦아요. 우리가 상상을 할 때 뭘로 합니까? 자기한테 가장 자유롭고 편한 언
 어로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국어가 아니라 머리로 배운 영어
 를 가지고 과학을 한다면 원천적으로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제한된 사고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들
 은 영어도 못하고, 평범한 회사원이 노벨상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 수상
 자도 자기가 노벨상을 왜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재미있
 어요. 우리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대학
 에서는 삼십 퍼센트, 심지어 오십 퍼센트까지 일반 강의도 영어로 해야 한
 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완전히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다 바보로 만들겠
 다는 거죠. 나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우리 사회의 지적인 능력이 현저히 떨어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녹색평론』을 발간하면서 제일 어려움
 을 느끼는 게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필자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녹색평
 론』의 취지에 부합하는 필자는 어차피 제한되어 있지만, 지금 대학의 선생
 들은 정신없이 바빠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소위 '학진 체제', 즉 학술진흥
 재단에 의한 지원 체제로 학자들이 한가롭게 탄 데 정신 팔지 못하도록 만
 들어놓아버렸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교수들이 눈에 불을
 켜고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발언을 한다든
 지 공적인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한다든지 하는 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요. 예전에는 지식인 잡지에 대학교수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수들이 그럴 여유가 없어요. 내가 대충 꼽아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수준으로 글을 쓰고, 책임 있게 사회적 발언을 할 만한 교수가 몇 명이나 될
 까. 수십 명도 안 돼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정신적으로, 지적
 으로 굉장히 빈곤한 나라예요. 『녹색평론』을 151호까지 끌어온 게 기적 같
 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막 같은 불모지에서 말이에요. 번역문화도 영
 망이에요. 일본만 하더라도 자기가 톨스토이 번역가로 살겠다고 젊었을 때
 결심을 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톨스토이만 번역해서 먹고살 수가 있어요.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다보니 일본의 어떤 유

명한 톨스토이 번역가는 늙었을 때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톨스토이하고 닮았더라고. (웃음) 번역은 평생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번역이라는 게 대학원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불과해요. 대학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학문적인 업적으로 인정해주지도 않아요. 다들 오리지널한 논문만 최고로 생각하는데, 학문이나 문화의 융성은 기본적으로 번역문화의 튼튼한 뒷받침 없이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기초도 없이 거죽만 흉내내면서 해방 후 칠십 년을 지내온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 척박한 문화 풍토의 배경이 다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승희 일본은 그래도 근대화되면서 맨 처음 한 게 번역이었잖아요.

김종철 일본에서는 에도 시절부터 네덜란드어 책을 이만 권 넘게 번역했다고 해요. 그 시절에는 일본도 쇄국정책을 쓰고 있었지만, 나가사키는 서양인들에게 개방돼 있어서 이곳에 주로 출입하던 네덜란드 사람들을 통해 서양 문물을 접할 수 있었던 거죠. 오사카에 가면 데키주쿠(適塾)라는 곳이 있어요. 에도 막부 말기에 네덜란드어로 된 텍스트를 가지고 서양의학을 공부하기 위해 학당을 만들어서 스승과 제자들이 숙식을 함께하면서 공부하던 곳인데, 지금은 오사카 대학 소속의 박물관이 돼 있어요. 거기를 둘러보다가 든 생각이 ‘조선은 이때 뭐했을꼬?’ 하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일본이 정말 아시아를 삼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각 분야에 견실한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문가다운 전문가가 드물어요. 만약 라틴아메리카에서 무슨 사건이 났을 때, 일본의 큰 신문사에는 그 지역에 정통한 기자가 몇 명은 있어요. 신문사 내부에 없으면 외부 필자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차베스가 죽으면 그 사망 기사를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까지도 그냥 뉴욕타임스를 베껴 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본 차베스예요. 정확한 내용도 모르면서 독재자라고 기사를 쓰는 거죠. 그러면 차베스가 박정희와 같은 인물이 되고 맙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녹색평론』에 번역을 많이 신는 이유는, 가령 쿠바를 제대로 소개

하고 싶다 할 때 믿을 수 있는 국내 필자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일본에는 수십 년간 카스트로를 바로 옆에서 지켜본 저널리스트가 있어요. 완전히 수준이 다르잖아요. 나는 저널리스트가 제일 첨단에 있는 지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문제 제기가 살아 있잖아요. 학자들은 조금 물러나서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시인들의 나라예요. 일제 강점기에도 근대적인 학문은 빈약했지만 시인들은 많았어요. 항일운동도 국내에서는 시를 가지고 했다고 해도 될 거예요. 그 전통 때문인지 지금도 시인은 널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지는 필자를 구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승희 지적 토양과 지식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요즘 대중들이 예전 하곤 다르게 책을 많이 안 읽잖아요.

김종철 옛날에도 많은 독자는 없었어요.

이승희 사실 저널리즘도 부침을 겪고 있고, 신문들도 많이 폐간되고 있고요.

김종철 그렇죠. 앞으로 활자문화는 쇠퇴하겠죠.

이승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지식인과 언론의 책임에 동의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지적 풍토의 기반이 허약해진 이유를 조금 더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기도 해요. 요즘 SNS 같은 곳을 보면 대중들이 직접 여론을 만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한국 사회에 만연된 '반지성주의'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김종철 언제 지성주의나 한번 해보고 반지성주의를 해봅시다. 우리는 지성주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웃음) 그런데 지적 활동의 기본은 언어적 활동입니다. 영화고 음악이고 미술이고 간에 언어가 수반돼야 합니다. 유명한 민중미술가 오윤이 내 친구였는데, 금년이 죽은 지 삼십 년째예요. 그래서 가나아트센터에서 회고전을 하고 그동안 발표되지 않았던 습작품도 전시되었죠. 습작들을 보면 기초부터 매우 단단한 예술가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하고는 동갑이지만, 정작 대학 다닐 때는 그의 의식이 굉장히 앞서 있었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 친구는 미술을 하고, 나는 문학을 했

죠. 사실 나는 그냥 시 한 편, 소설 하나 더 읽겠다는 생각 말고는 별생각 없이 대학 시절을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친구는 재학중이던 1960년대 말에 기성 화단을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사회참여적 미술 운동을 이미 시작했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이 친구는 내 또래 중에서도 대단한 선각자였어요. 고인이 된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 질투심 없이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인정하듯이 오윤은 가장 빼어난 한국 현대 예술가 중 한 사람이죠. 그런 인물인데도, 죽은 지 삼십 년이 지났건만 아직 ‘오윤 평전’이 한 권도 없습니다. 물론 삼십 주기를 맞아서 잘 정리된 회고전을 하는 것은 좋죠. 하지만 오윤이라는 예술가는 근본적으로 가나아트센터 같은 큰 갤러리를 체질적으로 싫어했어요. 그의 예술 작업은 부르주아적인 제도와 관행을 철저히 부정하는 자세로 일관해 있었죠. 끝수까지 반골인 예술가였으니까. 그런 그가 자신의 작품들이 지금 대형 갤러리에서 전시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혁명적인 예술 작품도 결국은 부르주아 체제 속에 흡수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지 모르죠. 어쨌든 내가 이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쓰인 ‘오윤론’이라는 게 삼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매번 그게 그 소리예요. 최고의 민중미술가라는 평가는 좋지만, 거기서 더 진전된 분석이나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미술평론가들의 게으름이나 무능력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이유는 오윤의 그림을 뒷받침해주는 사상과 철학이 문자언어로 개진된 게 없다는 점이에요. 오윤은 문자 기록을 남겨놓은 게 거의 없어요. 그 친구는 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놀고 술 먹는 것은 좋아했지만, 일기도 편지도 쓰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미국에 잠시 있는 동안 편지를 썼는데, 끝내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나중에 죽은 뒤에 오윤이 남긴 노트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한테 답장을 하려고 몇 줄 쓰다가 만 흔적이 있었어요. 참 이쉽죠. 그러니까 평전이 나오기가 어렵죠.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오윤의 삶과 사상을 깊이 있게 정리한 평전이 언젠가는 꼭 나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수준 높은 오윤론이 나올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 고흐도 베토벤도 그들이 남

긴 문자 기록 덕에 그들의 예술이 세월이 갈수록 더 깊이 있게 이해되고 평가되어온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관심 있는 학도가 오윤의 생애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가 남긴 발자취나 에피소드들을 발굴하고 채록해서 '오윤 평전'을 한 권이라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무슨 작업을 하든지 간에 모든 예술의 기본은 언어예요. 영화감독 앞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한때 타르콥스키에 굉장히 몰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르콥스키가 쓴 예술론이나 일기가 없었다면,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원래 영화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큰 관심도 없었던 내가 타르콥스키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순전히 그가 쓴 뛰어난 글 때문이었어요.

이승희일 영화도 같이 좋아하셨어요?

김종철 좋아해야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봤죠. (웃음) <노스텔지어>는, 그걸 보기 위해 대구에서 일부러 올라와 대학로의 어느 극장에서 봤죠. 거기에 주인공이 풀장의 울퉁불퉁한 바닥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촛불을 켜서 들고 걸어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걸어가는 사이에 이 촛불이 꺼지면 인류가 망한다는 생각 때문에 엄숙히, 참으로 진지하고 아슬하게 진행되는 장면이죠. 근데 거짓말 안 보태고 그 장면에서 관객들이 다 자더라고요.

이승희 같은 극장에 있었나봐요. 저도 보러 갔는데,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져서 딱 일어났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다 쓰러져 자느라. (웃음)

김종철 나는 그런 장면에서 초긴장 상태로 들어가거든. 다른 사람들이 자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 점에서 타르콥스키하고 나하고는 궁합이 딱 맞아요. 그리고 천장에서 빗방울이 계속 떨어지는 장면. 이게 십 분은 더 계속될 거예요. 극도로 느리게 움직이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환장하는 거죠. 아, 세계의 아름다움과 비극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나도 영화해야 되겠다. (웃음)

이승희 그게 영화 쪽에서는 1990년대 초중반이 시네필의 시대거든요. 사실 지금은 타르콥스키의 영화는 돈을 주면서 보라고 해도 잘 안 볼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영화광들이 예전의 문청들처럼 고전들을 보고 서로 이야

기하고 함께 흥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1995년에 종로 코아아트홀에서 전설의 타르콥스키의 <희생>이 국내 처음으로 개봉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감으로 우수 몰려갔는데, 영화를 보면서 싹 다 잔 거예요. (웃음) 재밌는 건 IMF 사태가 터지고 나서 시네필 시대도 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부자 되세요’ 소리에 경제성장 논리만 득세하고 문화에 대한 관심은 점점 희미해져갔죠. 그때 마침 멀티플렉스가 영화 쪽에서도 등장하거든요. 시네필 문화가 완전히 소멸된 시대가 IMF경이었어요.

김종철 왜관에 천주교 수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독일 신부가 와서 오래 있었어요. 그 사람이 타르콥스키의 필름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 대구에서 친구들을 모아 비디오로 보고 그랬죠. 아무래도 그렇게 보는 것보다 영화관에서 보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러다가 <희생>이라는 영화를 대구의 어느 극장에서 한 번 상영한 적이 있어요.

이승희일 동성아트홀에서 했을 거예요.

김종철 그래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드문 기회니까 가서 보라고 권하고, 나도 갔어요. 물론 그전에도 봤지만, 영화관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니까. 타르콥스키의 이 마지막 작품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를 갖고 있잖아요. 핵전쟁으로 인류가 파멸하는 상황을 상징하고,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인류가 구원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타르콥스키 특유의 심각한 톤으로 보여주는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심각한 장면들이 한창 전개되고 있는데 젊은 관객들이 여기저기서 과자봉지를 뜯어서 먹는 소리들이 들려요. 그 뽀스락거리는 소리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어요. “과자는 집에 가서 먹읍시다!” (웃음)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학생들이 씨익 웃으며 그러데요. “선생님 목소린 줄 알았어요.” (웃음) 타르콥스키가 쓴 일기의 영역본을 구했을 때는 단숨에 읽고는 며칠 걸려 발췌 번역을 했죠. 그리고 그걸 『녹색평론』에 실었는데, 대략 오십 페이지 정도의 분량이었죠. 가끔적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도록 공개해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독문학을 하는 친구에게 타르콥스키의 독일어판 일기를 완역해서 출판해보라

고 권했는데, 몇 년 후 두레출판사에서 출판되었죠. 근데 판본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번역한 거와 상당히 맛이 다르다고 몇몇 독자들이 말합디다. 어쨌든 타르콥스키는 내가 보기에 20세기 최고 수준의 예술가이자 사상가예요. 나는 지금도 그의 또다른 걸작인 <거울>의 첫 장면을 가끔 봐요. 타르콥스키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시골의 '다차' 풍경이 묘사돼 있는 장면 말입니다. 광활한 벌판을 배경으로 어디선가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밀밭의 밀들과 무성한 나뭇잎들이 춤추듯 한쪽으로 쓸리는 광경 속에서 젊은 여자가 울타리에 걸터앉은 채 먼 데서부터 걸어오는 낯선 남자를 바라보죠. 그걸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향수에 푹 잠겨요. '다차'라는 건 원래 러시아어로 '준다'라는 뜻이죠. 제정 러시아 때 황제가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모스크바 근교의 별장을 준 것에서 유래한 말이라죠. 사회주의 혁명 후에는 국가가 노동자들에게도 작은 오두막이지만 '다차'를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전통 때문에 지금도 모스크바 주민 중 절반 이상이 가까운 시골에 모두 '다차'를 가지고 있고, 휴가나 주말에 거기서 생활을 한다고 하죠. 대개는 수도도 없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오두막이지만, 거기서 텃밭도 가꾸고 낚시도 하고, 산과 들에서 버섯이나 열매를 채취하면서 자급생활을 한다는 거죠. 아이들도 어린 시절부터 이런 곳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면서 자라다보면, 자연스럽게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한 인간이 되겠죠. 타르콥스키는 소련의 관료주의에 절망해서 서유럽으로 망명을 한 사람이지만, 서구인들은 러시아인들에 비해 정신적으로 매우 메마르고 빈곤하다고 말했어요. 비록 종교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살아왔지만, 내면적으로는 러시아인들이 서구인들보다 더 건강하다는 얘긴데, '다차'에서의 생활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송희일 동독 쪽으로 가다보면 다차가 다 죽었던데. (웃음) 흔적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막 허물어져 있고.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왔죠? (웃음)

김종철 영화라는 게 참 압도적인 예술 장르인 것 같아요. 전기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웃음)

이송희일 아까 켄 로치도 말씀하셨는데, 켄 로치 영화는 어떠세요?

김종철 켄 로치 영화는 워낙 강렬한 리얼리즘이잖아요. 아일랜드 독립운동을 그린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얼마나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하층민의 가혹한 현실을 리얼하게 묘사하는 것도 참 대단해요. 그러면서도 유머가 넘치고, 우리는 구세대라 그런지 모르지만 리얼리즘이 좋아요. 타르콥스키는 사회적 리얼리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면적 리얼리즘, 즉 스피리추얼 리얼리즘(spiritual realism)이라고 할 수 있죠. 나는 켄 로치가 직접 쓴 글은 못 보고 인터뷰는 더러 봤어요. 타르콥스키는 글쓰기도 대가인 것 같아요. 그건 켄 로치와 타르콥스키의 개인적인 차이 이전에 서유럽 문화와 러시아 문화의 차이일지도 모르죠. 러시아는 지금도 공원에 가면 노인들이 19세기 문호들의 두꺼운 소설을 읽고 있다는데……

여전히 유일한 대안은 민주주의다

이승희일 네, 이제 우리 『문학동네』가 원하는 떡밥을 몇 가지만 던져주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웃음) 우선 저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예전에 심형래라는 코미디언이 〈디 워〉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평론가들이 그 영화를 보고 완성도가 좋지 않다고 비평했어요. 그랬더니 그 평론가들이 테러를 당한 거예요. 인터넷 테러를.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영화에 대한 평가를 한 것에 무슨 애국주의냐 하고 비판하는 글을 제 개인 홈페이지에 썼는데, 사람들이 그 글을 막 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후로 제가 실시간 검색어 일위에 한동안 오르내리면서 대중들에게 욕을 엄청나게 들었어요. 돌아다니는 곳곳마다 테러를 하겠다 헐박하는 사람도 있어서 두문불출해야 할 정도였어요.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황우석도 국익, 심형래도 국익, 이명박도 국익, 사실 지금 박근혜에서 반기문까지 이어지는 것도 국익이잖아요. 도덕도 필요 없고, 민주주의도 필요 없고, 그저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식으로 이어지는 라인. 이게 박근혜 이후까지 갈 것 같은 절망감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민 가야 되나? (웃음)

김종철 세상이 천박해지고 점점 더 품위가 없어지는 게 너무 슬퍼요.

이승희일 이걸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요?

김종철 무엇보다 교육이 문제예요. 지금은 교육이 없어요. 가정교육도 없고 사회교육도 없고. 학교는 교육을 포기한 지 너무 오래된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이십 년, 삼십 년 전 부모들이 자식들 교육을 더 잘 시켰던 것 같아요. 요즘은 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소멸됐어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르고, 아무런 예의가 없어요.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예의잖아요. 의도적으로 가르칠 것도 없이 성장 과정에서 자연히 몸에 배어야 하는 게 예의죠. 무슨 도덕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에 자기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나 이외의 타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는 인식을 제대로 한다면 예의는 저절로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 ‘관계’라는 것을 망각하고 산다는 뜻이에요. 타자의 존재에 대해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이승희일 북유럽은 어렸을 때 친구의 마음을 알아보는 교육을 먼저 한대요. 유치원 때부터. 친구가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는 타자에 대한 감수성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한국에서는 강남에서 영어 잘하라고 혀를 자르잖아요.

김종철 다들 그러니까 불행하죠. 상대를 일단 타자로서 인정하고 존중해야 자기도 존중받는다든 건 꼭 설명을 안 해도 아는 건데, 언젠가부터 이걸 모르는 바보들이 돼버렸어요. 실제로 요즘 많은 현역 교사들도 교사생활 못 하겠다고 그러데요. 나도 학교를 그만둘 무렵에는 아, 이놈들하고 이야기가 안 통한다는 기분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선 우리가 같은 사회 속에서 의사소통을 하고 살려면 꼭 선생과 제자가 아니더라도 공통된 문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점 그게 없어진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수업을 하다가 애들 눈빛을 보면 호흡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갈수록 내가 외계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1980년대, 적어도 1990년대 중반까지는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예전에는 학생이 선생한테 노골적으로 사기를 치지는 않았잖아요. 내가 2004년에 학교를 그만두기 직전인데, 어떤 학생이 등록금 마

런이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는 바람에 선생이 적잖은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얼마 후에 우연히 학교 근처에서 보니 그 학생이 미끈한 새 오토바이를 타고 뽕뽕 돌아다니는 거야. 뒤에 안 사실이지만 그 돈으로 오토바이를 샀던 거예요. 이건 내 이야기는 아니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정치적인 탄압을 받을 때는 정신들이 멀쩡했는데, 소비주의 바람에 휘말리면서 전부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이승희일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때 자유를 느꼈던 제 세대, 그러니까 386, 486 기성세대들의 잘못도 있을 것 같아요. 교육제도를 비롯해 이런 사회를 만든 건 결국 기성세대들이니까요.

김종철 우리 사회가 어딘가에서부터 깊이 병이 들어서 지금 여기까지 와 버렸어요. 정치가들의 질도 저 모양으로 낮아져서 설령 내년에 정권이 교체된다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자기가 주체라는 시민의식도 약한데다가 언론도 맨날 경제성장 타령이잖아요. 요새 성주의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풀뿌리 민중의 각성된 정치의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두고 봐야죠. 얼마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될지는. 얘기가 자꾸 돌아가지만, 나는 지식인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지금 지식인들은 지식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엄중한 단어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승희일 어디선가 선생님이나 한국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우루과이로 가라, 하고 쓰신 적이 있죠. (웃음)

김종철 그런 말 한 적 있죠. 세월호 직후 신문에 글을 쓰면서 뭔가 결론을 내리긴 내려야 하겠는데…… (웃음)

이승희일 저도 그런 식의 대사를 써서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연인 사이의 대화에서 ‘우리 나중에 프라하로 여행 가자’라는 대사를 썼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혼여행을 그쪽으로 많이들 가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를 베를린에서 상영하는데, 저 대사가 나오는 장면에서 관객들이 빵 터지는 거예요. 왜 웃는지 이해가 안 되었는데, 집에 돌아와 자려고 누웠다가 어느 순간 이불을 걷어챘어요. 생각해보니까 어떤 외국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중국 가자’ 이런 느낌의 대사를 쓴 것과 같은 거

예요. (웃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웃음) 우루과이 때문에 선생님께 이 질문을 드렸는데, 선생님께서 경향신문에 쓰신 칼럼을 보니까 우루과이와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김종철 차베스 때문에 라틴아메리카에 관심이 생겨서 그쪽 자료를 꽤 봤죠. 그런데 내가 스페인어를 모르니까 좀 힘이 들어요. 2014년 가을에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중요한 연설을 한 적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영어로 번역된 텍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주한 우루과이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혹시 그 연설문의 한글 번역본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유명한 연설문이니까 어쨌면 대사관에서 현지어로 번역해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우루과이 대사관에서는 그런 연설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스페인어를 배운 사람에게 번역을 부탁해서 『녹색평론』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인터넷에서 자동번역 시스템을 이용하면 불충분하지만 모르는 외국어도 대충 짐작할 수는 있어요.

이승희 구글 번역기를 돌리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웃음)

김종철 일본에서 몇 년 전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꽤 큰 출판사에서 미국 사람이 쓴 ‘아인슈타인 평전’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출판했다고 해요. 그런데 책이 출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독자가 책을 보는데 몇 군데 번역이 아주 이상한 거예요. 도저히 사람이 번역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문장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마존 독자 리뷰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도 연이어 같은 의견을 올렸어요. 결국 소문이 나서 출판사도 자체 검토를 해보니 말이 안 되는 번역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담당 편집자가 워낙 시간에 쫓겨 책의 일부를 자동번역기로 돌려 번역을 했고, 그걸 또 교정을 안 보고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사죄를 하고, 책을 모두 회수했어요. 그런데 실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동번역을 하고 제대로 교정을 안 보고 넘겼는데도, 들통이 나서 문제가 된 건 그중 극히 일부이고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런 대로 읽을 만한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자동번역 기술이 그만큼 발달했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이 자동번역 기술이 더욱 발달하면 번역이라는 인간활동이 불필요하게 돼버리겠죠. 통역도 그렇고요. 얼핏 편리한 세상이 될 것 같지만 나는 큰 문제라고 봐요. 고대 이후 지금까지 인류 문화사라는 건 크게 보면 번역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고립된 단일 문화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인간은 늘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자기의 세계를 보다 인간화하고 풍부히 해왔습니다. 그게 곧 번역의 과정이에요. 그런 번역을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하면 어떻게 될지 잘 상상이 안 가요. 우선 다급한 현실 문제로, 인문계 인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사라질 거예요. 사실 번역이라는 것은 지식인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번역자나 독자 모두에게 지적인 훈련도 되지만, 새로운 번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좋은 문장이 개발되고, 문화가 더욱 풍성하게 될 수 있죠. 인간이 정신적으로 성장하려면 다른 세계와 부단히 접촉하면서 자기와 타자의 같은 점과 다른 점, 그 차이의 의미를 숙고하면서 보편성을 향해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번역활동은 매우 소중한 정신적 훈련 수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정신적 훈련을 인간이 직접 행하지 않고, 기계가 번역을 하고 인간은 수동적으로 그 결과만을 보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인간이 자기 아닌 것, 혹은 타자와 교류하며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조정, 적응시키면서 궁극적으로 보편성에 이르는 자기교육의 경험은 어디서 어떻게 쌓을 거냐는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 기본소득을 제창하는 사람들이 자동화 기술이나 인공지능의 발전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논리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죠. 나 자신도 그런 얘기를 꽤 해왔어요.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보면 인공지능의 시대가 곧 전면적으로 열린다는 건 일자리 문제와 관계없이 굉장히 두려운 현상이에요. 이런 기술이 자꾸 발전하면 인간의 운명이나 실존적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자체가 다 무너질 거예요. 이대로 가면 언젠가는 오염된 지구는 버리고 화성으로 가자고 할 거예요. 화성으로 이주해서 식민지를 만들어 발달된 기술로 단시간에 거주 가능한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해서 살면 된다면서요. 얼마 전까지는 허황한 공상이라고 여겼던 게 점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렇

게 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지구상에서 거주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등등 전통적인 인간관, 세계관이 뿌리로부터 붕괴되고,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인식은 모조리 폐기되고, 오만방자한 인공적인 문명이 활개를 치겠죠.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고민하면서 구축해왔던 예술이고 사상이고 철학이고 모든 게 무의미해집니다.

이승희일 인공지능과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사실 저는 그래서 평면적인 기본소득론이 갖고 있는 위험이 있지 않나 싶어요. 기본적으로 찬성은 하지만.

김종철 나는 농민 기본소득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줘야 해요. 결국 농민 경제의 악화 때문에 지방이 피폐해지니까요. 농촌 사람들이 원자력발전소를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것도 경제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수도권 과밀 현상도 기본적으로는 농촌 경제의 몰락 때문이죠. 노무현 정부가 중앙 집중적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세종시를 만든다고 했을 때 나는 그건 가장 졸렬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종시 만들어봐야 결국은 수도권만 확대됩니다. 그 돈 가지고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군인들한테도 월급을 주는데, 군인들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농민들한테 일 년에 몇백만원 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려워요? 현행의 농업관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자연히 수도권 인구가 분산됩니다. 우리나라 지역 경제의 중심은 근본적으로 농민 경제이니까요. 읍이고 면이고 학교가 폐교되고, 병원이 없어지고, 문화적 시설도 사라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농촌 경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에게 경제적 여유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시골 지역의 시장이 자연히 생기를 되찾고, 학교도 병원도 돌아오고, 문화적 시설도 재생될 거예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빈둥거리는 건달들이 고향으로, 시골로 가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기본소득의 원리는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주는 거지만, 나는 순차적으로 해야 하고, 우선은 농민들에게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탈핵운동을 하는 친구들한테도 나는 지역 경제를 살리면 지역

민들이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막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 운동은 탈핵운동도 되는 거죠.

이승희 말씀하신 게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어머니도 농사를 짓고 계시거든요. 사실 농민들의 빚이 도시인들보다 더 많아요. 쌀값이 지금 개 사료값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농민에게 주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변할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도시 청년들이나 문화인들 같은 젊은 층들이 있잖아요. 아까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사람들이 머리를 안 쓸까봐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문화인들과 청년층에 기본소득이 할당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문화적 가치들, 그리고 두뇌를 가동시켜야 하는 다른 지적인 놀이들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종철 다양한 지역으로 흩어져서 자유롭게 살자 이거죠. 수도권 건달들에게 기본소득을 준다고 하면 지방으로 내려가서 아주 자유롭게 살 겁니다. 예술 작업을 하는 친구들은 지금 당장 고정된 소득이 아쉽잖아요. 그래서 『녹색평론』 이번 호부터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한테 ‘내가 기본소득을 받는다면’이라는 타이틀로 글을 받아 연재해보려고 합니다.

이승희 재미있는 게 지금 녹색당을 지지하는 문화예술인이 많거든요. 공약 중에 기본소득에 홀려서. (웃음) 월세도 못 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도 이쪽 판에서 어느 정도 버티고 있으니까 강의도 나가고 글도 쓰는데, 후배들은 몇 년 전에 먹을 게 없어서 굶어죽은 어느 시나리오 작가처럼 여전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기본소득을 통해 창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만 마련된다면 훨씬 나아질 것 같아요. 문화적 토양도 갖춰지고.

김종철 진짜 예술가들은 기초적인 생계만 보장된다면, 만족하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거예요. 국가나 공공기관이 무슨 심사를 해서 보조금을 준다, 그건 완전히 예술에 대해 무지한 태도예요. 예술이라는 것은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술가를 줄을 세워서도 안 되고요. 그냥 무조건 기본소득을 주면 됩니다. 줄렬한 방법을 쓰지 말고.

이승희 그런데 선생님이 줄곧 제기하셨던 것처럼 은행 자체를 공영화

해서 이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국방비를 줄여서 하자고 주장하기도 하더라고요.

김종철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 세금을 더 걷자고 말하면 기본소득에 호의를 갖던 사람들도 움찔해서 물러나요. 대체로 사람들은 세금이라는 말에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착취당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세금보다는 국가의 공유 자산을 많이 확보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으로 기본소득을 운영하자는 논리를 펴는 거예요. 지금 기본소득 운동하는 동지들도 자꾸 세금만 가지고 이야기해서 내가 갑갑할 때가 많아요. 공유 자산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은행을 공영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세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군사독재정권 때 국가 소유의 은행을 정권이 맘대로 주물렀던 기억 때문인지 진보 진영 쪽의 경제 전문가들도 은행 민영화에 대해서는 별로 반대를 안 해요. 민영화된 은행이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경쟁하라? 그건 한때 타당한 논리였는지 모르지만, 민간은행들이 규제를 벗어나서 탐욕스럽게 이윤 확대 경쟁을 전 세계적으로 벌이는 바람에 온 세계가 부채 디플레이션에 빠져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게 오늘날의 상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은행의 민영화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죠. 내가 제안하는 것은 은행을 공영화하여 공적 감사 기능을 강화하면서, 집권 세력으로부터는 철저히 독립시켜 자유로운 경영을 하게 하되, 그 경영의 결과 생기는 이익을 공공 기금으로 만들어 그것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하자는 거예요. 은행의 공영화라고 해도 정부가 통제하거나 하는 짓은 그만두고, 어디까지나 시민들에 의한 감시체계하에서 금융 전문가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되 재산 그 자체는 공유로 한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국가의 공공 기금으로 한다…… 그리고 이런 일은 어떤 정파에도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기본소득청’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상을 실현하려면 결국 국회가 동의를 해야 하는데, 그게 문제예요. 이게 골치 아픈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인 시민운동이 필요해요. 그리고 시민운동을 전개하려면 왜 기본소득을 실시해야 하고, 그러자면 공유 자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의 공영화가 꼭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사회 구성원들이 널리 공유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이게 기본소득에 관한 내 구상의 골자예요.

이승희일 주장이 너무 많더라고요. 알파고 대결 이후에 바로 총선이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되는데, 기본소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녹색당이 잘될까?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트위터나 SNS를 관심 있게 보았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세금 문제나 여러 현안에 대해 여전히 ‘이게 되겠어?’ 하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다행히 버니 샌더스의 경제자문을 하고 몇 년 전부터 꾸준히 기본소득론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로버트 라이시에 대한 국내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오바마도 결국 기본소득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밝히기도 했어요. 어쨌든 공론화가 될 것 같긴 해요. 여기에 대해 선생님이 선구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니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김종철 로버트 라이시는 아직 기본소득에 관한 본격적인 논리를 펴지는 않았지만, 요즘 들어 강연을 통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영민한 사람이예요. 나도 놀랐어요. 로버트 라이시도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정도가 됐나. 이제 기본소득은 세계적인 상식이 된 것 같아요. 유럽의 몇몇 도시에서는 부분적으로 이미 시작을 했고, 핀란드도 내년부터 하겠다고 했고, 스위스도 몇 년 안에 아마 다시 국민투표에 붙일 거예요. 사람들이 아직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에 대해 망설이는 것은 세금 부담이라는 저항감 때문인데, 그런 점에서 나는 기본소득 운동가들이 공유 자산을 가지고 분배한다는 걸 더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가의 공유 자산에서 생기는 이익에 대한 배당금을 받는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야죠. 지금 미국에서도 2008년 금융 파산 사태 이후에 부쩍 은행 공영화 운동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퍼블릭 뱅크’라는 이름으로요. 미국은 대형 은행 기관들이 거의 전부 민간 은행들입니다. 심지어 ‘연방준비제도이사회’라는 이름을 가진 중앙은행도 실은 민간은행이예요. 그런데 결국 이 민간은행들의 탐욕 때문에 2008년의 금융 위기가 생겼고, 이대로 두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퍼블릭 뱅크 운동을 열심히 벌이고 있

는데, 그 모델은 노스다코타 주립은행입니다. 노스다코타 주립은행은 미국에서 예외적인 퍼블릭 बैं크예요. 원래는 19세기 말에 농민들과 주민들이 만든 신용협동조합으로 출발했는데, 은행으로 바뀐 뒤에도 계속 공립 은행의 지위를 유지해왔죠. 그 덕분에 이 은행의 비즈니스 활동으로 생긴 이익은 사적인 주주들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고 주의 공적 회계에 편입되어 주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스다코타는 지금 실업률도 제일 낮고, 주의 재정도 미국에서 가장 견실하다고 합니다. 미국이 합리적인 사회라면 이런 퍼블릭 बैं크 운동이 확산되겠죠.

이승희 과연 미국이 합리적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선생님이 경향신문 칼럼에서 힐러리를 ‘카오스의 여왕’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이제 곧 미국 대선이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성주 사드 배치 문제도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가계부사 같아서 걱정이예요. 그동안 한 번도 한국에서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워낙 힐러리가 네오콘이랑 관계가 긴밀해서 최근에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김종철 지금보다 좀더 불안하게 되겠죠. 그래야 군산복합체가 유지될 테니까. 아직 나는 책을 못 봤지만 이번에 나온 송민순 회고록을 보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맺어진 군사협정이라든지 중요한 협정은 많은 경우 미국산 무기 구매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증언하는 대목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외교정책, 군사정책은 어디까지나 미국 군산복합체한테 포박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산복합체와 긴밀히 유착돼 있는 힐러리가 집권한다면 한반도는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죠. 박근혜는 수세에 몰려 있으니까 악수를 둘 가능성도 크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안심이 되는 건 지금 조선일보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웃음) 요새 만나는 사람마다 그 걱정을 하더라고요. 내년엔 대선이 제대로 치러지겠느냐. 그렇지만 미국은 적어도 겉으로는 선거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싶어하죠. 그 틀 속에서 군산복합체가 이익을 챙기는 구조를 유지하고 싶을 거예요. 전쟁도 그렇죠. 부분적인 전투면 모를까 전면전은 미국이 허락해주지 않을 거예요. 한국 정부는 작전권도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아마 서해나 휴전선에서 좀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겠죠.

이승희일 위키리크스에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관련한 힐러리의 기밀들이 폭로된 이후 불안감이 더 극대화되었어요. 아, 이것들이. (웃음) 클린턴 재단으로 무기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무기 제조 업체들을 인가해주는 대신, 재단에 천문학적인 기금을 받는 방식으로요. 최근엔 IS에 무기를 팔아먹어왔다는 내용도 폭로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을 무기상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김종철 그래서 상당히 양심적인 사람들 중에도 은근히 트럼프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국내 신문에서는 보도를 잘 안 하죠. 나도 만약 트럼프가 되면, 예측 불가능이기는 하지만, 지금의 군산복합체 지배 구조에 상당한 균열을 내겠구나, 기대를 하는데…… 하지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웃음) 왜냐하면 트럼프의 외교 원칙은 아니, 원칙도 없는 사람이지만, 한국하고 일본이 자기 나라를 방위하는데 왜 미국이 돈을 대냐, 하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하라고 해라, 이런 식이에요. 완전히 장사꾼 논리거든요. 이 사람은 이념이고 사상이고 없는 사람이에요. 하기는 미국이 세계를 지도한다거나, 경찰 노릇을 하겠다는 것은 그만두어야 한다는 트럼프의 생각 자체는 바람직스럽긴 해요. 그동안 별것도 아닌 미국이 세계를 지도하겠다는 바람에 세상이 지옥이 되었잖아요.

이승희일 버니 샌더스하고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기조는 비슷했는데. 선생님 칼럼 중에 버니 샌더스, 제러미 코빈,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을 엮어서 세계 정치사에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등장한 것 아니냐고 쓰셨던 글이 기억나네요.

김종철 버니 샌더스가 됐으면 참으로 좋았겠죠.

이승희일 저도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가장 빵 터졌던 부분이 어디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을 앞뒀을 때 백만원을 후원하셨더라고요. (웃음)

김종철 그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이승희일 선생님이 어느 인터뷰에서 이야기하셨더라고요.

김종철 내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아, 아마 옛날 학교에 있을 때일지 모르겠네. 희망돼지 모금할 때 교수들이 모여서 우리도 돈 좀 내자 했던 것 같아요.

이승희일 그게 맥락이 뭐였나면, '위낙 이상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들으시지 않습니까?' 하는 소리를 들곤 발끈하시면서 '내가 백만원도 보낸 사람이야'라고 응수하신 거죠. (웃음) 당시는 좌우를 떠나서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희망 같은 게 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뽑고 그런 때는. 그렇게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오셨는데, 또다른 글에서 정말 인상적인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평민들이 파업을 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했다는 부분요.

김종철 아, 로마 때 이야기요. 몬스 사케르.

이승희일 네, 평민들이 몬스 사케르라는 산에 일제히 올라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파업을 했다는 부분요. 운동 하는 사람들이 그 칼럼을 좀 읽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우리는 맨날 바리케이드 치고 같은 공간에서 맴돌면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변칙적으로 공간을 이동해서 하는 시위가 되게 재밌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김종철 가라타니 고진이라는 사람도 취직 안 하기 운동을 벌이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웃음) 우리는 이리다간 결국 부자들만 살아남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잘 하는데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예요. 실은 가난뱅이 없이는 부자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부자들이 왜 부자냐 하면 가난뱅이가 있기 때문이죠. 가난뱅이가 없으면 부자가 될 수도 없고, 부자 행세를 할 수가 없어요. 가난뱅이가 굴종적인 노예생활을 감수하기 때문에 부자의 권력이 존재하는 거죠. 로마의 역사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몬스 사케르라는 것을 발견하고 어찌나 흥미롭던지. 이게 최초의 총파업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절곡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결국 이것이에요. 그리고 부채 문제도 고대 이래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규정짓는 근본 문제라는 것을 고대사를 읽으면서 새삼 확인했어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게 재산 문제예요. 억압받는 사람들은 부채에 시달리고, 지배자들은 채권자들이죠. 어떻게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똑같지?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배와 피지배의 문제입니다.

이송희일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 최순실이 비선 실세였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즉 권력이 사유화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지탄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권력자 개인의 자질론을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좋네, 나쁘네. 그런데 선생님은 계속해서 덴마크의 시민 합의 기구라든지 차베스의 실험들을 주목해오셨어요. 저도 다른 데서 번역된 차베스에 대한 글들을 좀 읽었어요. 차베스가 대통령이 돼서 제일 처음 시도한 게 코뮌 형태처럼 그 안에 속한 사람들 스스로가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형식의 제도화였죠. 선생님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오셨죠. 한 사람의 정치전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탈핵도 정치의 문제이고, 기후도 정치의 문제, 그것은 곧 민주주의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해오셨어요. 이게 다 의사 결정 과정 자체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고, 제도적인 근간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위기가 재발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하셨죠.

김종철 그런 말을 계속해왔죠. 유일한 대안은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것이라고. 민주주의의 급진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이송희일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들을 안 해요. 야당 지지자들도 박근혜만 아니면, 이명박만 아니면 하는 진영 논리에 갇혀버려서.....

김종철 나태한 비평가들의 먹잇감으로는 박근혜가 좋죠. 끊임없이 먹잇감을 주잖아요. 그런데 나도 매일 신문을 보고 사는 사람이지만, 실은 무척 피곤해요. 매일같이 똑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이송희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루과이의 정치 상황을 최근에야 알았어요. 파리 기후 총회 이후로 워낙 주목을 받아서요. 우루과이의 역사도 한번 훑어보게 됐죠. 선생님도 여러 칼럼들에서 우루과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루과이는 한국보다 작은 나라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현실사회주의, 소련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고, 대안 에너지로 생태계 보존에 힘쓰고 있는 우루과이가 꽤

근사하게 느껴졌어요. 현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모델이랄까. 그대로 본뜰 필요는 없겠지만 참조는 되겠다 싶어요. 지금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일 순위가 우루과이입니다.

김종철 나는 간다고 하면 코스타리카인데. (웃음) 우리 식구들에게도 말했어요. 다음 생에는 우리 코스타리카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자고. (웃음)

이승희 코스타리카가 더 잘 정비되어 있나요?

김종철 우선 군대가 없어요. 군대 철폐한 지 벌써 반세기 이상 됐죠. 일본은 평화 헌법이라지만 사실은 군대가 있잖아요. 세계에 몇몇 도시국가를 빼놓고는 군대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코스타리카는 실제로 없어요. 그러면서 질적으로 매우 높고 평화로운 사회예요. 좌파 지식인들은 자본주의 욕하는 재미로 사는지 모르지만, 나는 비록 자본주의의 틀 속에서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사회가 있다는 데 주목하자고 말하고 싶어요. 코스타리카나 덴마크나 다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질적으로 미국이나 한국과는 너무나 달라요. 이 사실에 착안해서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그런 나라의 수준에 다다를 수 있겠는지 연구하고 노력해보자는 거죠. 어쨌든 지금까지 내가 찾아낸 바로는 덴마크도 좋지만 코스타리카가 썩 맘에 들어요. 거기는 농업과 관광을 위주로 살지만, 초현대식 호텔이라든지 대형 골프장 같은 게 없다고 해요. 논리가 매우 합리적이예요. 코스타리카를 찾는 외국인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오성급, 육성급 호텔도, 골프장도 아니고, 잘 보존된 자연과 평화로운 사회의 모습이다, 그런 논리 말이에요. 얼마나 합리적이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죠. 군대가 없으면 오히려 평화를 더 잘 지킬 수 있다는 논리도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예요. 요즘 공부를 해보니까 쿠바도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물론 일당 독재이기는 한데, 그리고 언론 자유도 제약을 받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그런 가난하고 억압적인 나라는 절대 아니예요. 일당 체제라는 것만 해도 그래요. 미국이나 한국이 복수 정당 체제라고 해서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 예를 들어, 북한을 보고 사람들은 흔히 손가락질을 하죠. 권력을 세습하는 뒤떨어진 사

회라고. 근데 미국은 어때요? 클린턴가와 부시가가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하거나 하려고 하잖아요.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대부분의 정치가는 기성 엘리트 정치가 계급에서 배출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넓은 의미에서 이것도 세습제예요. 그럴 바에야 북한처럼 아예 노골적으로 세습하는 게 차라리 나을지 몰라요. 선거한답시고 쓸데없는 비용 들이는 것 절약되니까. (웃음) 쿠바에 대해서 전부터 내가 궁금했던 게 있어요. 피델 카스트로가 왜 자기 아들이 아니고, 나이 많은 동생에게 권력을 이양했을까? 아들이 없나? 찾아보니 아들이 둘이나 있어요. 장남은 핵물리학자, 차남은 의사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들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라울 카스트로는 피델의 아우이기 때문에 권력을 승계한 게 아니에요. 쿠바 공산당원 사이에서 이미 가장 신망이 두텁고 실력 있는 사람으로 통하고 있었어요. 피델과 라울은 형제간이지만 둘 사이에는 약간의 노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피델을 민족주의자라고 한다면 라울은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차이가 둘 사이에 의견 차이를 낳을 수도 있지만, 그게 토론과 대화를 통한 민주적 결정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는 게 중요하죠. 실제로 쿠바에서는 국가 평의회에서 의견이 갈라져서 합의나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청년당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웬만큼 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미국이나 한국보다는 나은 민주주의를 말이에요.

이승희일 선생님은 쿠바에 가시고, 저는 우루과이로. (웃음)

김종철 아니, 나는 코스타리카.

이승희일 라울 카스트로의 딸이 있는데,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LGBT 운동의 대모라고도 불려요. 한때는 외국에 나가서 성소수자들을 탄압하는 쿠바에 대해 비판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쿠바는 여전히 LGBT에 대해서 억압적이거든요. 물론 최근에 라울 카스트로가 딸을 지지하면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반면 우루과이는 1917년엔가 여성 참정권이 주어졌죠. 동성 결혼도 인정되고요.

김종철 쿠바가 그런 점에서는 아직 구석이긴 하지요.

이송희일 그리고 우루과이가 현재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게 터빈이래요. 풍력발전에 필요해서.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에 딱 해당되는 나라가 우루과이 같아요. 나라가 다 풍차, 언덕마다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원의 구집오 퍼센트가 재생 에너지라고 해요.

김종철 그건 그래요. 그런데 그건 코스타리카도 마찬가지야. (웃음)

이송희일 저는 우루과이에 가고, 선생님은 코스타리카에 가서서 서로 만나는 걸로 하죠. 가서 모히토 한잔하는 걸로.

김종철 그럼시다. (웃음)

이송희일 아이고, 세 시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김종철 격월간 『녹색평론』 발행·편집인. 전 영남대 영문과 교수. 저서로 『시와 역사적 상상력』 『시적 인간과 생태적 인간』 『비판적 상상력을 위하여』 『간디의 물레』 『땅의 옹호』 『발언 1, 2』, 옮긴 책으로 『正義의 길로 비틀거리며 가다』 『경제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100% 돈이 세상을 살린다』 『간디의 '위험한' 평화헌법』 등이 있다.

이송희일 1998년 단편영화 <언제나 일요일같이>로 영화감독 데뷔. <후회하지 않아> <백야> <아칸비행> 등을 감독.